

다니엘 45 강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 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 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 재물과 은 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여기 그 왕이 누군가?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며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하는 그 왕이 누군가? 이사야 14 장 13 절 보게 되면 우리가 봤죠? 루시퍼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은 항상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죠?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이 되면 육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거죠. 그래서 사도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 장 4 절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오에 대해서.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오죠? 13 장 5,6 절 보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날 때까지 변성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변성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게 없어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처럼 잠시 후면 베어져서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이다. 지금 역사적으로 앗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 이런 나라들이 변성을 했죠? 정말 사단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변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런데 그들이 못깨달았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망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작정된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처럼 악인들이 변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또한 아주 변성해 가지고 극도로 달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단번에 주님이 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죠.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 오도록 오래 참고 계시지만 결국은 사단의 권세가 극도에 이를 때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에 오셔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단번에 사단이 고꾸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요. 극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을때 주님의 영광을 보죠? 그래서 절대로 입을 벌려서 불평하지 말라. 자물쇠로 입을 채우라 이런 얘기죠? 자 37 절 보니까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자기 조상. 그러면 유대인과 관련되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상할게 없죠. 가룟 유다보고 너희 중의 하나는 마귀다.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볼 때 조금도 이상한게 아니죠. 또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브에게 그러셨죠?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너의 바램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에게 예속 되는 것을 말하시죠? 그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거꾸로 되어 버렸죠? 여자들이 결혼할 때 자기가 남자들을 택하고 자기가 남자들을 주관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남편을 구해 가지고 삼아야 하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학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데이트 해가지고 택해야 되는데 여자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 저는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통일교 문선명씨가 살아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결혼했습니까? 거기보면 어떤 민족이, 한국 사람이 흑인하고도 결혼하고 백인하고도 결혼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짝을 지어 줬어요. 이것은 문선명씨가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했겠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과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상대를 골라주기 때문에 여자들은 누구를 선택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choice 가 없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짝을 지어주고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사람이 포악하든 순하든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간에 추남 미남이든 간에 짝지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독재입니다. 38 절 보니까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도 어떤 우주의 최고의 신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일루미나티를 보면 어떤 굉장히 파워풀한 신, 빛의 신. 결국 사단이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공경하는 군대의 신, 이것은 우주 에너지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 일루미나티죠? 여기에 빛의 신이다. 뉴에이지 운동에서 신봉하는 최고의 신, 결국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그것을 신봉하는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존재들은 뉴월드 오더, 에큐메니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 신은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죠.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군대를 에너지 개념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최첨단의 장치나 레이저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거죠.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을 가지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공경한대로(섬긴대로) 받는 것을 흉내내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죠. 39 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 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그들은 열 왕. 2 장에 나오는 열 왕을 지칭하는게 분명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팔레스타인 땅은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열 왕들에게 이제 분배가 되죠. 지금 온 세계가 10 개로 나뉘지고 있죠? 그들은 왕국을 받지를 못해요. 한 시간동안만 왕들로서 권세를 받다가 계속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7 장 12 절 보면 **[또 네가 본 그 열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0 절 넘어가니까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이미 적그리스도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북쪽

왕과 남쪽 왕 분명히 열 왕중에 들어갔죠? 이것들이 반역을 하니까, 열 왕들에게 한 시간 동안 권세를 줬는데 이들이 반역을 하니까 결국은 멸망 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 절 보니까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영광스러운 땅은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 땅에 들어가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많은 나라들이 전복되죠. 그런데 암몬과 모압 에돔은 말짱하게 보존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에돔땅 페트라 사해 바다 아래 지역으로 이제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3 년반 동안 부양받게 될 곳이 사해 남쪽 에돔이기 때문에 그 에돔과 모압 암몬 이곳은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과 통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42,43 절 보면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 재물과 은 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적그리스도가 이런 재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죠. 가룟 유다가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도둑질을 했죠? 결국 이 적그리스도는 도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하고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이다. 가장 큰 도둑이 뭘니까? 이 세상을 도둑질했죠? 죄를 가지고 와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해가지고 자기 종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 종을 만드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온 땅과 만물들이 자기 것이 됐죠.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가장 큰 도둑놈이죠? 그래 가지고 죄를 가지고 와서 도둑질 해가지고 사망을 가져왔고 또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가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것이 이 도둑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다 발아래 짓밟혀지겠죠? 혼자 통치해야 되니까. 이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45 절 보니까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산과 관련된 바다라면 사해와 지중해죠? 적그리스도는 사해와 지중해 사이에 자기의 궁전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니까. 그런데 그가 종국에 이를 것이다. 갑작스런 종국에 이를것이다. 요한계시록 19 장 20 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향으로 불타오르는 불뿔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체포되가지고 불뿔에 떨어지죠. 그러나 마귀는 천년동안 저 깊은 무저갱 속에 잠깐 가두죠? 왜냐하면 천년 후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때 천년왕국 때도 복음이 전해지죠? 그때는 예수님이 땅에 오서 가지고 통치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천년씩 사니까 아이도 썩썩 낳고 병도 없고 하니깐 점점 더 교만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예루살렘 성도들의 도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도성과 하늘에 있는 도성을 포위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것들은 무슨 특권이 있느냐? 그렇게 하죠? 마귀가 올라 와서 다시 시험을 하니깐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 이것은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천년 동안을 엄청나게 번식해 가지고 건강하게 기쁘게 사는데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곡과 마곡이 다 모여 가지고 성도들의 진영을 공격하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다 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또 율법을 받기 전에도 남은 자들 노아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죠. 율법 시대에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덮어 주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했죠. 죽어도 지옥으로 바로 안가고 아브라함의 품 열조에게로 돌아 갔죠.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죠. 그 다음 주님이 부활하실때 그들이 부활했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때 지금 2천년 동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을 줬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믿습니까? 내 주먹을 믿는단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있죠? 환란 때도 기회를 주시죠? 천사들이 막 날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듣지를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늘을 향해 샷대질을 하고 회개하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가지고 천년왕국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들여 보내 시려고 그렇게 하시지만 곡과 마곡이 일어나죠? 이렇게 사람들이 악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또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국에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 이방인들도 그들이 영생을 못 받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처럼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늘에 위성으로 올라가서 사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살수있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노아의 육신적인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었지만 주님이 피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로 나뉘어져서 새하늘과 새땅과 새예루살렘에 영원토록 살게하는 그러한 조치를 해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멸하면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때문에 이 땅은 더이상 환란이 없죠.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인류 역사 6천년이지만 그 전에, 또 6천년 끝나고 천년 왕국 지나고 영원세계, 따져 보면 7천년이라는 세월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있는건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요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교리란 것은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죠? 너희 시대에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걸 깨닫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책망이란 단계가 시작되죠. 구원은 법적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책망을 해가지고 깨닫고 고치고 그 다음 단계 의로 훈육해서 그 다음 의로운 삶을 살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안되는 거예요. 개역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 절에 교리란 말이 빠졌어요. 구원의 교리가 빠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아무리 책망한들 뭐해요? 어떻게 의로 훈육할거예요?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게 뭐냐하면 교리에요. 구원의 교리입니다. 저기 로마 교회는 들어가면 자기네 구원의 교리를 꼭 가르쳐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한대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보면 은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없이 인간적인 설교를 하게되면 영원히 구원 못받게 되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리가 빠지고 교리가 교단 교리로 바꿨어요. 교파마다 구원의 교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옥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참한 일입니다. 참 이걸 정말 극소수만 알죠?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교리를 자기 맘대로 만들어서 자기 맘대로 주장하고 그래요. 그러나 교리는 성경의 교리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떠나라.]** 사도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복음이 다 들어있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요일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죠? 이 구원의 교리란 것은 척추 같은 거예요. 척추가 바로 되어 되죠? 척추가 비뚤어지면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제대로 안되고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 이걸 뭐 왔다 갔다 헤메고 의심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받았나 안받았나? 대개 보면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도 잘 몰라요. 이것이 사단의 공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히 안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걸 알려줬지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전도해

가지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서야 아 우리가 이제 알았네!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된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때 안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가지고 확신 속에 있으면 이 확신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12 장 넘어갑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내일 12 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11 장을 끝나게 하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12 장이 끝나고 다니엘서를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욕기를 들어갈텐데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먹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아버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올 한해는 정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모두가 다 때에따라 시즌을 쫓아서 어렵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